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안산광장

03 특집

안산시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현대 사회 필수인 스마트폰과 택배, 긴급 상황에 출동하는 119, 안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도 곳곳에 설치했다. 119 우선신고 시스템 구축까지... 시민 편의 구축구축 행진다.

12-13 기획

겨울철 대비 건강 유의사항 안내

감기·독감·감염성 질환·알러지성 질환·심뇌혈관 질환 등 겨울에 조심해야 할 질병은 많기도 하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알려주는 건강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이번 겨울을 안전하게 지내보자.

07 인터뷰

안산 그리너스 FC 이희성 선수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둔 안산 그리너스 FC. 아쉽게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5위를 차지하며 내년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하고 있다. 팀 주장인 이희성 선수로부터 직접 듣는 이번 시즌 결산.

15 도시의 삶

동근세상·생생정리수납봉사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생활하도록 돕는 요양시설 '동근세상'. 정리수납으로 마음도 살리고, 삶도 살린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는 생생정리수납봉사단.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준다.

산책하기 좋은 안산의 공원 3선

꽃빛공원·중앙공원·원고잔공원

안산은 녹지율이 매우 높은 도시다. 녹지율이 높고 녹음이 울창하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크다. 안산은 많은 공원이 시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시민에게 힐링의 장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꽃빛공원

단원구 외동 광덕산 북쪽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꽃빛공원은 이름만큼이나 예쁜 풍경을 보여주는 화원 같은 공원이다. 봄이면 만발한 벚꽃이, 가을이면 물감을 흘뿌려 놓은 것만 같은 빨갛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진 등산로는 제법 많은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단원구 순환로 390 일원을 돌아가는 길 끝부분은 공설 공원묘지로 사용하고 있다. 안산시는 도시 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해 꽃빛공원이 아름다운 공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돕고 있다.

꽃빛공원의 총 면적은 15만9천232㎡이고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마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벽천 시설 및 장미터널, 야간 조명 등이 설치돼 있어 밤이면 반짝이는 전구들로 별천지를 이루는 곳이기도 해 시민들의 심터로 각광받고 있다.

와동에 있는 시 직영 꽃 양묘장은 관내 주요 도로변, 교통섬, 유휴지 등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75만여 본의 초화를 육성하며 '어린이 꽃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를 끌고 가다가 길이 아름다워 무작정 올라와 봤다는 부천에서 온 A씨는 "아름다운 공원이자

꼭꼭 숨겨져 있어 마음씨 고운 사람들 눈에만 띄는 공원일 것이다"라며 즐거워했다. 이 아름다운 비밀의 화원을 찾아 산책하는 것은 오롯이 행운을 가진 안산시민만의 축복일 것이다.

그 길을 보물 찾듯 찾아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 보길 권해 본다.

중앙공원

중앙공원은 단원구 고잔동 산20 일원으로, 안산시청 뒤쪽에 위치해있다. 봄이면 진달래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도심 속에 위치한 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곳은 산책과 운동, 삼림욕이 가능한 41만7천745㎡ 규모의 공원으로 1997년 개원했다.

고잔동 당곡운동장을 거쳐 경안고등학교를 우측에 두고 길을 오르면 좌측으로는 운동기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마치 헬스클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운동기구들이 많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앞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다. 이곳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말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가득 찬다.

계단으로 조성된 길을 따라 오르면 '청림동산'이라는 기념비가 나온다. 웬지 비석에 새겨진 글귀처럼 이곳을 걸으면 마음과 몸이 청량해야 될 것 같아 바른 자세를 잡게 된다. 기념비 옆으로 오르막길이 나온다. 이 길은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어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대부분 벚나무로 봄에는 하얀 눈꽃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잎으로 물들어 온 동산을 오색의 물결로 가을의 향연을 펼치는 곳이다. 멀리가지 않아도 안산에서 가을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안산시청 뒤쪽 코스에 난 계단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정자가 하나 나온다. 정자에 앉아서 땀을 식히며 독서를 즐기는 시민들도 있다. 중앙공원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안산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등 전망도 좋다. 해질녘에는 멀리 서해로 떨어지는 붉은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운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고잔공원

고잔동에 위치한 원고잔공원은 주차시설(고잔동 산 83)도 잘 되어 있고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오색으로 물든 단풍 사이로 단원고등학교가 보이고 명성교회가 마주보고 있다. 원고잔공원이라는 공원명칭은 좀 생소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 공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빌라촌의 정원 같은 느낌으로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한다.

놀이터 근처에는 분수와 수돗가가 있어 여름이면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겨울이면 경사가 진 곳에서 미끄럼을 타며 놀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원고잔공원은 빌라촌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나무들이 울창할 뿐만 아니라 사계절 중 가을 단풍이 아주 예쁜 곳이다. 곳곳에 체육시설과 함께 벤치도 있어 쉬어갈 수도 있고,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담을 나누며 운동을 즐긴다.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이 돛 자리를 깔고 앉아 싸운 음식을 먹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가을빛이 내리는 오솔길을 따라 무진3차빌라 쪽으로 올라가면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현감 벼슬을 했고 병자호란 때 아들 우량과 함께 강화도에서 순절했다는 이인현 선생묘가 자리하고 있다. 근처 동국빌라에 사는 시민 B씨는 "도심 한 가운데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도 이 공원만 찾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진다"는 말을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듯 깊어진 가을이 울긋불긋 삶의 이야기를 건네는 숲길을 느릿느릿 걸어보는 것도 삶의 여유를 찾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민 편의 구석구석 행기는 서비스 소개



스마트폰과 택배는 엄청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머릿속에 떠오른 궁금함은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10초면 해결된다. 바쁜 와중에도 필요한 물건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택배를 통해 하루 이틀, 심지어 당일 내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택배는 현재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넘어섰다고 한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돕고,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데이터 부족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요 공공장소 75곳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했으며, 1인 가구의 택배수령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무인택배함 10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119긴급차량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안산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 확대… 공원·광장·관광지 등 75개소

구분	장소
공공기관 (35)	시청·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여성비전센터 등
공원 (15)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와동체육공원, 와동제3공원, 반월공원, 성호공원, 어울림공원, 달미역공원, 시낭공원, 샛터공원 등
광장 (3)	안산광장, 선부광장, 성포예술광장
문화시설 (3)	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최용신기념관
밀집지역 (11)	상록수역 주변, 한대앞역 주변, 중앙역 주변, 안산역 주변, 다문화거리, 한양대학교, 중앙동 하나은행 앞, 상록수역사거리 주변 등
관광지 (4)	안산갈대습지, 구봉도 낙조전망대, 풍도, 육도
복지기관 (2)	상록구·단원구노인복지관
기타 (2)	와~스타디움, 시민시장

안산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 지역을 시내 주요 장소 75곳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주요 공공장소에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손쉽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는 시청, 본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휴식 및 여가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화랑유원지, 안산호수공원 등 공원과 안산광장, 최용신기념관 등 곳곳에 설치됐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상록수역 주변, 한대앞역 주변, 중앙역 주변 등 안산선 역사 일대에도 설치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시내 주요 버스 정류장 등 41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

◇ 문의 : 안산시 정보통신과(031-481-3003)

택배 이제 편하게 받아보세요!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서비스 365일·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안산시는 1인 가구의 택배수령 불편함을 해소하고 택배기사 사칭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함은 시민 누구나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택배함 상단에 부착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골목길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물품을 구매할 때 택배 수령지를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주소로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수취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택배함에 물품을 보관한 뒤 관제센터를 통해 수취인에게 보관함 번호와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취인은 물품보관 연락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택배보관함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찾아갈 수 있고 48시간 초과 시 24시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서비스는 365일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홀로 사는 여성뿐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주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 문의 : 여성안심무인택배함 고객센터(1577-1545)

설치장소	주소	상세위치
이동행정복지센터	상록구 이동로 46(이동) 무인택배함	주차장
해양동주민자치센터	상록구 한양대로 31(사동) 무인택배함	대로방향 측면
본오도서관	상록구 각골로 49(본오동) 무인택배함	현관 출입구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상록구 성호로 303(부곡동) 무인택배함	복지관 출입구
반월동행정복지센터	상록구 건건로 51(건건동) 무인택배함	정문 옆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구 와동로 118(와동) 무인택배함	건물 옆면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단원구 중앙대로945(고잔동) 무인택배함	생활관 출입구 옆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단원구 지곡로 46(선부동) 무인택배함	보조출입구
선부석수경로당	단원구 북촌2길 17(선부동) 무인택배함	어린이놀이터 입구
다문화안전경찰센터	단원구 다문화2길 51(원곡동) 무인택배함	건물 옆면

※ 유의사항 1. 주소 끝에 '무인택배함'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주문 시 휴대전화 번호는 실제 번호를 기재해주세요.(안심번호 불가)

경기도 최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12월부터 정식운영…출동시간 최대 76.5% 단축

안산시는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기능개선으로 센터제 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정보를 연계해 긴급차량 및 재난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예상경로를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차로의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내에서는 안산시가 최초로 구축했다. 신호운영소프트웨어 기능개선과 신호제어기에 통신모뎀 설치만으로 구현되며, 한 번의 사업으로 모든 교차로의 신호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안산소방서와 사동119·선부119안전센터만 운영된 뒤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10월18일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와 함께 사동119안전센터부터 제일교회사거리까지 총 6개 신호교차로가 있는 680m구간에서 교통량이 적은 오후 2시와 교통량이 많은 오후



후 6시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에서 평소 일반차량의 통행시간과 비교해 출동시간이 오후 2시에는 227초에서 71초로 156초(68.7%) 단축됐고, 오후 6시에는 328초에서 77초로 251초(76.5%) 단축되는 등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시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긴급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보센터 CCTV로 교차로를 모니터링해 다른 차량의 안전 확보와 장시간 신호대기 불편 등도 줄여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보다 안전한 안산시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정보센터(031-481-3383)

‘2020 안산 방문의 해 및 김홍도의 도시 안산’ 선포식 개최

45개 국가 주한 외교사절단 세계의상페스티벌로 패션쇼 선보여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 도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와 내년,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를 선정해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은 갈대습지와 서해안 갯벌, 대부해솔길 생태 트레킹,

염전, 유리공예, 종이공예, 도예, 승마, 요트 등 독특하고 차별화된 생태자원을 보유해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 2017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ESTC)를 개최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대부도갯벌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생태탐방 명품코스 대부해솔길’을 알린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안산갈대습지를 중심으로 탐방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해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해왔다. 지난 4월3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기점으로 TV·라디오·SNS 온라인을 통해 김홍도 축제와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국제거리극축제 등 공격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와 관련 산업 확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끌어내고, ‘관광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가 주관한 세계의상페스티벌은 올해 안산에서 공동유치해 개최했으며, 해외 45개 국가의 외교수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계패션 문화외교 행사다.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는 국제문화행사인 세계의상페스티벌은 ‘2020 안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더욱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하게 45개국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한복과 각국의 세계의상을 선보이는 이색적인 패션쇼도 선보였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스탬프투어... ‘스탬프 찍고 기념품 받자!’

안산 관광지 18군데 중 5곳 이상 방문하면 상품 수령 가능

안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탬프 찍고 기념품 받자!’ 대시민 홍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지난 10월26일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당일부터 시작했다. 안산의 주요 관광명소 18군데 중 5군데 이상에서 스탬프를 찍어오면 선물을 주는 스탬프 투어인데 벌써부터 선물을 받아가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선착순 500명으로 참여방법은 안산관광안내소 및 대부도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패스포트 수첩을 수령한 다음 투어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어 오면 된다. 그 다음 QR코드를 찍거나 안산 시관광홈페이지(tourinfo.ansan.go.kr)에 접속해 후기를 등록하면 된다.

스탬프투어를 마치고 후기를 등록했다면 안산관광안내소 및 대부도관광안내소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패스포트 수첩 비치장소는 현재 안산역 관광안내소와 대부도 관광안내소이며 향후 시화호 조력발전소, 바다향기수목원, 유리섬 박물관, 종이미술관, 어촌민속박물관, 안산갈대습지, 단원미술관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패스포트 수첩 및 기념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이 한정된 수첩부터 챙기고 있다. 스탬프 투어 이후 선물은 스탬프 5~9개 안산화폐 5천원권, 스탬프 10~14개 대부맛김, 스탬프 15개 이상이면 동주염전 소금 세트나 그랑꼬또와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탬프를 찍는 곳은 안산시내권인 안산갈대습지(안내소 앞), 노적봉공원(매점 앞), 다문화거리(안산역관광안내소 앞)



등 3곳을 포함해 시화호조력발전소, 바다향기수목원, 대부도 유리섬, 종이미술관, 풍도,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대부해솔길 1~7코스, 대부도관광안내소 등 모두 18군데다.

기념품 교부처는 대부도관광안내소와 안산역 관광안내소이며 자세한 문의는 대부도관광안내소(1899-1720)와 안산 시관광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 역도요정 박혜정 선수 금메달 봉납식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 우승 봉납식 열어

안산시는 11월5일 시청사에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안산시를 빛낸 박혜정(16·선부중) 선수의 메달 봉납식을 열었다.

제2의 장미란으로 불리는 박혜정 선수는 10월 21~27일 평양 청춘가역도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된 ‘2019 아시아 유소년·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유소년 여자 최중량급(81kg 이상)에 출전해 인상 110kg 용상 145kg로 합계 255kg을 들어 올려 각 종목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안산 선부중학교 소속인 박 선수는 국내·외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참가 자격 점수가 반영되는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향후 대한민국 역도의 미래를 밝게 했다.

이날 봉납식은 김영숙 안산시역도연맹회장, 조성현 선부중 역도부코치, 박 선수의 가족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따뜻한 환영인사와 함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안산시를 빛낸 박혜정 선수가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 안산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는 직장운동부에 역도부 창단은 물론 와~스타디움에 역도연습장과 선부중학교에 역도전용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내년 1학기부터 시행 기초수급가정 · 장애인 학생 ·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지원

안산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 강화 등을 위해 전국 시 단위로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는 2019년 7월부터 시의회에 보류돼 있다가 10월25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1단계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부터 우선 지원하며 1단계 대상으로 1천591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 학생은 29세 이하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 기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거나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와 동일하고,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교는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했어야 가능하다.

다. 지원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은 1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게 되며, 이중 지원 방안을 위해 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해 학자금 중복 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1~2월 사업 공고를 한 뒤 5월까지 접수 및 심사를 거쳐 6월에 최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통해 안산시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많은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대학교 및 직장에서 받은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올해 4월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우선 3단계 대상까지 지원하기로 협의를 마무리 한



시는 다자녀가정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 소득 6분위는 3단계, 2만여 명 규모의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으며 향후 재정여건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2)

대부도에 ‘주민숙원’ 도시가스 공급된다…약 40% 연료비 절감 기대 대부도 인구 증가, 경제 ·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



안산시는 11월7일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주차장에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준공식을 열고 대부도 2천400여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대부도 8천700여 명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연료비 절

감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는 2017년 11월1일 대부도 경제 · 관광 ·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연 이후 공급 사업을 추진해왔고,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부도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20.8km와 LNG위성기지(29.9톤 저장탱크 2기)를 설치했다. 사업은 (주)삼천리가 맡아 진행했다.

LNG위성기지에서 시작되는 길이 20.8km의 공급관은 대부도 방아머리를 시작으로 북동삼거리 · 구봉도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 대동초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LNG위성기지에는 압력조절 자동화시스템 등 첨단설비가 완비됐으며 전문운영인력 6명이 배치돼 안전한 운영을 담당한다.

시는 이어 2022년까지 연차별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2월에는 유리섬박물관, 대부도복지체육센터(2020년 준공 예정) 등으로 이어지는 11.7km 구간의 공

급관이 추가로 준공된다. 2020년에는 12.4km, 2021년에는 5.6km, 2022년에는 7.4km 등 대부도 일대에 모두 57.9km 길이의 공급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대부도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실내등유 및 LP가스 보다 약 40%의 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 등 관광 경제 활성화의 벽이었던 높은 연료비가 개선돼 2030년 대부도 인구 5만 명이라는 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도의 한 상인은 “냉 · 난방이나 난로를 도시가스로 이용하게 돼 너무 편리하고, 연탄을 안 써도 돼 청결하다”며 “비용면에서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도시가스 공급을 환영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391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시 종이팩 ‘상록水’로 환경보호 앞장 내년부터 250ml에서 200ml로 용량 변경 보급예정

안산시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친환경 종이팩으로 제공 중인 ‘상록水’를 내년부터 200ml 용기로 변경해 생산한다.

시가 개최하는 행사와 각종 시민행사 등에 보급 중인 상록水는 지난 4월부터 보급됐다. 병입 수돗물을 PET병에서 종이팩인 상록水로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약 5.4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3천여만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5월 개최된 ‘국제거리국축제’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많은 시민이 몰리는 행사에 종이팩 ‘상록水’ 30만개를 공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종이팩 ‘상록水’를 마셔본 시민들은 “신기하다” “플라스틱 병 보다는 보관 등이 불편하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을 위한다는 생각이 좋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의 홍보를 위해 친환경 종이



팩 ‘상록水’를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종이팩 용량이 많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용량을 250ml에서 200ml로 변경해 보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031-481-3836)

제2회 안산창업페스티벌 개최...창업지원정책 · 청년문화 확산 앞장 화려한 볼거리에 다양한 정보전달...‘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 알려



안산시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사)기술혁신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제2회 안산창업페스티벌 SUFIA(Start up United Festival In Ansan)가 지난 11월1일 한양대 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안산창업페스티벌은 서울예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OST-BI,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후원으로 스타트업 20개사 부스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창업 축제는 예술과 디지털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기업 ‘디사이즈잇’의 식전공연으로 막이 올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표창으로 이어졌고, 안산시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이 소개됐다. 참가 기업 나누리안(주)관계자는 “안산창업페스티벌은 서로 다른 아이템을 갖고 다른 곳에서 오랜 준비 끝에 첫발을 내딛는 창업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창업지원정책 관련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장”이라며 “안산창업페스티벌이 계속돼 스타트업 기업들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럼니스트 김태훈은 ‘재미없는 것을 열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마케팅

팅 특별강연을 했다. GS홈쇼핑 파워 MD(상품판매홍보기획 전문가)는 판매 전략을, TIM&CO 박병석 대표는 유통업에 선배 창업자로서의 경험을 공개했다.

안산창업페스티벌은 창업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했다. 중국 하이마오크로스보더유한공사 박위생 회장의 특별강연과 중국 유력 바이어의 현장 상담, 패션·이·미용 관련 중국 최고의 왕홍(유명 유튜버 또는 블로거)으로 유명한 ‘위홍’과 ‘루링링’이 실시간 전하는 페스티벌 참가 기업의 부스 홍보가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창업페스티벌은 창업인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와 플리마켓도 함께 열려 축제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안산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다. 안산스마트허브에는 1만여 개 중소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들과 협력으로 상승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ASV(Ansan Science Valley)에서 고차원 기술과 정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39세 미만 청년창업자들은 안산시 청년큐브와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187개 사무실로 창업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원곡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진행하는 창업기업 인큐베이팅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참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해 누구든 창업하고 싶고 창업을 하면 성공하는, 창업이 일상처럼 쉬운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 오늘 창업페스티벌을 통해 창업도시 안산의 입지가 더욱 다져지길 바란다”고 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소식通

안산화폐 다운 연말 10% 특별할인

안산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11~12월 두 달 동안 안산화폐 다운 연말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특별혜택 규모는 45억 원이며 시민들은 이 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원까지 10%의 할인 혜택으로 다운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전통시장 사용 시 40%의 소득공제(기본 30%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운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고 카드식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지류식은 가까운 관내 NH농협지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4월부터 발행한 안산화폐 다운은 당초 판매 목표액이 완판 돼 지난 9월 100억 원을 추가 발행했으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카드식 3만8천 개소 지류식 1만4천400개소에 달한다.

지류식 가맹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입 수를 자랑한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359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농촌폐비닐, 폐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대량 배출 시기를 맞아 영농폐기물 방지 및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11월29일까지 마을 또는 농가별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수거할 예정이다.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 처리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량이 2톤 이상일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kg당 A등급에 해당할 경우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농약병 및 농촌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7)

제8기 안산시 상인대학 졸업식...서비스 교육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상인대학 수료자 대상 경영컨설팅 · 경영환경개선 병행 지원 계획

안산시는 11월6일 소상공인의 경영역량강화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와동 상인회 소상공인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8기 안산시 상인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상인대학은 소상공인 전문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知)와 재(才)를 겸비한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8기 상인대학의 와동 상인회 상인들은 지난 9월10일부터 2개월간 46시간에 걸쳐 생업과 병행하는 피곤한 속에서도 전문경영인의 마인드를 배우기 위해 성공점포 전략 상품진열관리 상점가드닝 등 실습 중심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안산시 상인대학은 이번에 졸업한 8기까지 6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인회가 구성돼 12개의 상점가가 주차환경개선, 시설현대화, 매니저 지원 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유치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단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안산시 상인대학 졸업생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의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강영군 와동 상인회장은 “우리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



께 배움의 시간을 가진 상인들에게 감사하며 이 계기로 주변 상인들간의 친목과 연합이 이뤄져 우리 와동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골목상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으니 조직화된 상인회가 활성화돼 골목상권 재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 수립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인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을 병행 지원해 역량강화 경영안정화 사업경쟁력 강화 등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95)

안산 그리너스 FC 이희성 선수

“안산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기존 안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아산으로 옮겨가면서 2017 시즌부터 K리그 2부 리그에 참가하는 안산시 시민구단 안산 그리너스 FC가 창단했다. 2017년 3월4일 대전 시티즌과의 홈경기를 통해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르며 안산 그리너스는 출발을 알렸다. 안산 와~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산 그리너스는 2017·2018 시즌 모두 K리그 2부 리그 10개 팀 중 9위를 차지했다.

2019 시즌을 앞두고 임완섭 감독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준수한 성적을 내며 시즌 중 3위에도 오르는 등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5위에 머무르며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에는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리그 5위의 성적은 역대 최고의 성적이며, 총 36경기 42실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한 광주FC 다음으로 실점이 적어 수준급 수비력을 자랑했다.

3월3일 치른 K리그2 2019시즌 대전 시티즌과의 홈 개막전 경기에 5천558명의 관중이 와스타디움을 방문하는 등 시즌 평균 3천여 명의 시민이 축구장을 찾아 흥행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2019시즌을 마무리하며 안산 그리너스의 주장인 골키퍼 이희성 선수를 만났다.

Q. 이번 시즌에서 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을 보였는데,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지?

2018시즌에 9연패를 한 경험이 있다. 선수들이 많이 힘들었고 당시 감독님만의 잘못은 아닌데 감독님이 경질당하기도 했다. 이번 시즌은 긴 연패가 없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선수들끼리 매우 끈끈하다. 2017년 창단 멤버들을 주축으로 3년 차가 되니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런 면이 올해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Q. 이번 시즌 가장 기억나는 경기, 선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이번 시즌 첫 승을 거뒀던 경기였다. 개막전을 아쉽게 패배하고 시즌 초반 2무 2패로 성적이 부진하다가 다섯 번째 경기에서 아산에 어렵게 승리했다. 기억에 남는 선수는 사실 정말 모두가 열심히 해줘서 따로 뽑기가 힘들지만, 올해에도 도움왕에 도전했던 장혁진 선수가 떠오른다. 또 최명희, 박준희 선수는 팀의 기동 역할을 해줬다. 황태현 선수도 그 전에는 경기에 많이 못 나왔지만 큰 대회에 참가한 후 실력도 늘었고 긍정적으로 많이 변해 팀에 큰 도움이 됐다.

Q. 평소 훈련이나 경기가 없을 때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경기 다음 날은 휴식을 취하고 그 외에는 거의 매일 나와서 훈련한다. 대부분 주말에 경기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처럼 주말에 아내,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가능한 가족과 무조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

Q. 축구선수로서 당장의 목표가 있다면.

안산 그리너스 소속으로 꼭 K리그 1부로 승격하고 싶다. 2부 리그에서 특히 시민구단이 1부로 승격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그리고 2부 리그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1부 리그에 올라가서 전 소속팀인 울산현대와 경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Q. 축구인으로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 선수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고 싶다. 지금 아이가 3살인데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커서 아빠가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선수생활을 하고 싶다. 은퇴 후에는 안산 그리너스에서 지도자를 하면 더 좋겠지만, 어디에서든 지도자 생활을 꼭 하고 싶다. 특히 한국축구에서 유소년 단위 골키퍼 코치가 부족한데 유소년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다. 물론 더 큰 목표를 가진다면 프로팀에서 코치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감독 도전은 쉽지 않겠지만 (웃음).

Q. 관중,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선수단·팀 차원에서 노력하는 점이 있다면.

2부 리그지만 안산 그리너스는 관중이 꽤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 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구단 차원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며 노력하고 있다. 2년 연속 사회공헌 대상도 수상했다. 선수들도 팬들, 안산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시민구단으로서 특히 시민들과 접촉면이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Q. 2019시즌을 마무리하며 안산 시민께 한마디.

우선 기대해주신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해서 팬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과 구단주님의 관심과 격려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단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안산 시민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성적이 안 좋을 때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수들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다음 시즌에는 준비를 더 잘해서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보겠다. 2019시즌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문의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031-480-2002)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골키퍼 이희성 선수



2019 안산 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 열려

학생 주도의 공연, 체험, 전시 마당 한자리에



마을숲통나무 꿈의학교 학생들의 목공작품 전시



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 공연 모습

2019 안산 꿈의학교 성장나눔발표회 '마을과 함께하는 꿈의 축제'가 11월2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렸다.

안산 꿈의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며 성장한 삶의 역량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을축제 형태로 기획됐다. 학교를 넘어 마을과 함께 꿈꾸고 도전하는 꿈의학교와 생동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었던 성장나눔발표회는 공연, 체험, 전시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는 꾸물타리 연극, 애자일 뮤지컬, 상상밴드 등 14개 꿈의 학교에서 연극, 뮤지컬,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고 올림픽기념관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다양한 체험부스와 전시를 볼 수 있었다.

아트테크, 마을숲통나무공방, 고려인 청소년의 유라시아 등 18개 꿈의학교에서는 3D프린팅 체험, 목공 체험, 핸드드립 시연, 러시아 음식 체험 등 새롭고 창의적인 체험부스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May KING, 감성스케치, 아트픽 등 16개 꿈의학교는 3D모델링, 미술, 애니메이션 작품 및 활동사진을 전시해, 한 해 동안 학생 스스로 만들어낸 꿈과 도전의 성장과정을 표현했다.

위안부를 알아가고 기억하는 요리재능 기부 꿈의학교에서 활동했던 김은지(19) 학생은 "김복동 할머니 추모박물관도 가고, 빵·과자를 직접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위안부 할머니들께 기부했다"며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기뻛고, 앞으로도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마을숲통나무 꿈의학교에서 목공을 배웠던 손성민(17) 학생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실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며, "목공으로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내년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꿈의학교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온 마을과 함께 힘을 합쳐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고 도전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꿈의 학교'란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말한다.

◇ 문의 : 안산교육지원청(031-412-4563)
◇ 경기꿈의학교 홈페이지 : village.goe.go.kr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든든한 마을, 단단한 공동체’

2019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오는 12월7일~8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라이언스 홀에서 올 한해 활발히 주민활동을 진행한 안산 25개동 총 131개의 마을공동체가 1년의 성과를 발표하는 공동체 한마당이 열린다.

2019년 안산 마을만들기 주

민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활동 공유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안산 마을공동체 활동의 역량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자리는 결과발표와 더불어 '공동체 한마당'에 참여한 주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뽑아 우수 공동체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마련되어있다.

주민 동아리 마중물 사업 51개 팀, 세월호 공동체회복 마을살이 8개 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 50개 팀, 거점공간조성 3개 팀, 마을살이실천연구 2개 팀, 마을재생 기반마련 17개 팀이 '공동체 한마당'에 참여하여 2019년 한 해동안 진행한 공동체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주민공모사업 결과 전시, 테마별 기획전시, 마을공동체 활동 체험부스 및 어린이 팝업놀이, 안산마을주간(12월3일~12월6일)이 운영된다.

주민공모사업 주체 이외에도 안산에 거주중인 안산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체 한마당'을 통해 안산의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안산의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9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주민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를 고민하고, 우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들의 이야기들을 나눠보세요.

◇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2019 달라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해야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

3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성명,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필요)

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9.7.1.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 까지 추가 소득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6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의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직종²⁾을 추가함.**

¹⁾ 급여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

²⁾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안산시, 대안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중 · 고교 1학년 과정 입학생 대상 30만 원 범위



안산시가 대안학교 신입생들에게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일반 중 · 고교 입학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시작했으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공평한 교육복지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지난 10월부터 대안교육기관도 추가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말한다. 다만,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돼야 하며 방과 후 및 주말에 운영하는 곳은 제외된다. 또한, 학칙으로 교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올 3월 4일 기준으로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 · 고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이다.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다른 시 · 도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학칙으로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각 품목별 1벌을 지원하며,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학부모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지원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학교규정,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신청서)를 12월10일까지 안산시청 교육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교복 영수증이나 구입내역서에는 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일 다음 달 15일 이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꾸준히 지속할 예정이며 안산시 모든 청소년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반 중 · 고교 신입생은 '안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의해 올해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다. 고등학생은 안산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중학생은 경기도교육청(50%), 경기도(25%), 안산시(25%)가 함께 부담해 지원한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2019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작



금상 하종규작 '대부광산'



은상 박노정작 '종현마을에서 어촌체험하기'



은상 이경식작 '시화호수영대회'

‘그 날’의 열여덟과

‘그 날 이후’의 열여덟이 만나 세월호를 기억하다

세월호 생존학생과 안산 청소년의 토크콘서트 ‘열여덟의 시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학생과 현재 청소년들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열여덟의 시간’이라는 토크콘서트가 열려 현장을 찾았다. 생존학생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소년이었던 현재 20대 청년들과 현재 열여덟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대화를 통해 공감하는 자리였다. ‘기억’을 주제로 한 1부 토크에서 ‘세월호를 겪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한 생존학생은 “참사를 겪고 이제 성인, 대학생이 되었는데 꼭 세월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년으로서 충분히 의심하고 판단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동했던 것 같다”라고 담담히 말을 이어갔다. 또 다른 생존학생은 “아직 참사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들,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꿈’을 주제로 한 2부 토크에서는 각자 꿈이 무엇인지 대화를 이어갔다. 한 생존학생은 “사고 이후 꿈을 직업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며 “그 매개체가 글이 되든 말이 되든 영상이 되든 찾아가는 중이다”고 생각을 밝혔다. 다른 생존학생은 “꿈이 간호사인데 참사 이후에는 그 중 간호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소방 현장에서 의사와 비슷하게 사람을 구하는 역할인데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3부 토크는 ‘행동’이 주제였다. 토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세월호 추모와 진실을 알리기 위한 SNS활동’, ‘진상규명을 위한 캠페인 활동 참여’, ‘5주기 기억식에서 함께 했던 1,000인 합창단’ 등 자신들이 했던 다양한 행동들을 공유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노세극 4.16안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성인 생존자들도 엄청나게 힘들어 했다고 들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생존학생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격려하며 “416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 돼서 새로운 안산,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문의 : 4.16안산시민연대(031-483-0416)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단원국제세미나... 김홍도 예술세계 재조명과 외연 넓혀

세계 미술사의 한 장으로 편입하는 학문적 연구와 국제적인 홍보 필요

단원 김홍도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망해 현재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과의 연관성과 적용 가능성을 살펴 문화예술도 시로서 안산의 위상을 높이려는 '2019단원미술제 단원국제 세미나'가 지난 11월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단원국제세미나는 정동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여기 지금, 또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5G 시대에 왜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다시 주목해야하는지 설명했다. 정동채 전 장관은 "단원 작품의 특징은 민중적 시선, 해학과 풍자, 건강성과 역동성"이라며 이는 일반 대중의 시선과 함께 하는 '평등', 삶의 희로애락에도 불구하고 예술과 휴식을 통한 '자유',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어 바쁜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 시민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내는 콘텐츠로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원복 전 경기도박물관장은 '단원 김홍도의 재조명-한국화, 한자문화권 내 위상'을 주제로 김홍도의 예술적 발자취가 한국과 한국을 벗어난 동아시아 권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풀어냈다. 그는 "단원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타국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특징을 담은 진경산수화, 정형산수화, 도석인물화, 초상화, 문인화, 불화, 풍속화까지 모든 장르에 능한 한국화의 범본(範本)이며 서구의 르네상스인에 비교되는 천재화가"라고 했다.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박은순 교수는 '단원 김홍도의 서양화법과 사실적 진경산수화'를 주제로 단원 김홍도의 출중한 화법이 동서양 화풍의 흐름들을 적절히 융합하고 절충한 결과임을 논증했다. 박은순 교수는 "단원이 도화서 화원으로 활동했던 조선 후기 정조말엽에는 유입된 서양화법의 투시도법·원근투시도법을 활용한 새로운 화풍이 형성되던 시기였다"며 "김홍도의 해산도(海山圖), 서성우렵도(西城羽獵圖), 화성행도, 화성성역의궤 서장대 그림을 보면 단원이 전통적인 기법과 서양화법을 융합시켜 새로운 양식을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짜오 중국 난징미디어그룹 '이소우창' CEO는 '중국 산수화의 발전과정'에서 "중국 산수화가 계승과 혁신을 이룬 시기는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매우 빈번했던 명·청나라 시대"였다고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알리며 실현하는 자가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말을 빌려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세세하고 깊이 있는 이해로 평범해 보이는 장면도 독특성, 민족성, 문화특색을 선명하게 보여줬던 김홍도의 예술 태도와 심미관은 현대예술가가 배우고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용기 이브이알 스튜디오 대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화예술의 가치공유 확대'를 주제로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과 동 시대의 조선화화를 새로운 매체 디지털로 재생산되고 재해석해서 보여줬다. 윤용기 대표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고전문화예술을 지키려면 모든 세대, 특히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 다가가야 한다"며 "고전문화 예술의 가치를 후대가 계속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현대 디지털 기술과 철학이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와 융합을 이루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는 윤재갑 중국 하우아트뮤지엄 관장이 '문화예술의 네트워킹과 세계화', 김영복 케이옥션 대표의 '단원 작품과 인문학 중심-사람을 사랑하는 예술과 인문학 엮보기', 주제발표가 계속됐고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치호 교수가 주재하는 주제발제자와 세미나 참여자간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재)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단원국제세미나는 21회째를 맞은 2019단원미술제의 일환으로 김홍도의 예술세계 현대적 재조명과 외연 확장, 국제화 가속을 위해 열렸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2019 안산국제아트쇼 한호전에서 성공리에 마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작품 30여점 거래



세계와 함께하는 안산을 표방하기 위해 출발한 '2019 안산국제아트쇼'가 지난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안산시 중앙동 소재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2층에서 진행됐다. 총 153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76개 부스로 이루어진 이번 아트쇼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미술협회가 주관했다.

약 30여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가격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게 거래되며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에 참가한 작가 중 55명이 안산에서 활동하는 작가였고 그 외에는 외부초대작가, 외국작가도 포함됐다. 다문화로 유명한 안산인 만큼 다문화 출신 작가들을 초대하고 작가 선발은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했다. 작가들은 안산국제아트쇼가 국제적인 미술시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아트쇼에 참여했다. 개막식에는 시관계자, 안산시 여성합창단, 인터내셔널 영 드림즈가 와서 공연 및 축하를 해줬다. 이번 아트쇼는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는데, 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동에 위치하고 행사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건물 2층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구경했기 때문이다.

작품 구매를 떠나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안산국제아트쇼를 준비한 안산미술협회 박경숙 회장은 "각각의 부스에는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전시돼 있어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면서 "대형 미술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도 좋지만 이곳 전시회에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진짜 보물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미술협회 회원들은 이번 아트쇼가 세계5대 아트페어인 미국의 시카고 아트페어,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독일의 쾰른 아트페어,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 프랑스의 FIAC 등과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는 아트페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 문의 : (사)안산미술협회(010-5206-9222) / 인지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신

중한

정치후원

금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맑은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밟고 나가면
길이 생기요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맑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남궁인 전문의가 전하는

우리 주변의 술 이야기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시민 공개강좌와 공연을 개최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강좌는 여러 TV프로그램을 출연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남궁인 교수가 맡았으며, 남 교수는 ‘당신에게도, 만약은 없다’는 주제로 우리 주변의 술 이야기 등 알코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남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당신에게도, 만약은 없다’

“안주 없이 술만 마신다면 살은 빠지지만,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



술=알코올+에탄올

“사실 술 얘기는 뻔해요. ‘술 많이 마시지 마시다’라는 얘기로 설명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더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하면 술, 술 하면 알코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탄올(Ethanol)이 술입니다. 술은 알코올과 에탄올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에탄올 성분은 무색, 가연성 액체이며 특유의 냄새가 나고 쓴맛,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과일이나 곡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의 발효산물인거죠. 이 성분들은 인간의 중추신경 억제제 역할을 하고,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 마취 효과가 있어요. 에탄올은 조금 먹으면 약간 취하는데 많이 먹으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주속도>해독속도

= 안면홍조·어지러움·두통 증상

“알코올을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가 발생해요. 그런데 술을 빨리 마시다 보면 음주속도가 해독속도보다 빨라 분해 후 체외로 배출돼야 할 아세트알데히드 중 일부가 체내에 남으면서 안면홍조, 저혈압, 오심, 구토, 빈맥(잦은 맥박),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시각 흐림 등의 반응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6시간에 걸쳐 음식과 함께 마시면 숙취를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가끔 술은 칼로리가 낮아서 살이 빠진다고 합



니다. 그러나 안주 없이 술만 마신다면 살이 빠지긴 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음주=인류에게 허용된

가장 위해가 큰 물질

“음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뇌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마비로 필름이 끊겨요.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우울증도 생기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숨 뇌(연수)의 마비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에서 330만 명이 사망합니다. 술은 발암물질 A등급으로 담배와 더불어 인류에게 허용된 가장 위해가 큰 물질로, 한국은 음주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는 칼로리를 최대한 알코올로 채우고자 해요. 안주는 거의 먹지 않거나 간단한 멸치, 김치 등으로만 소주를 먹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주 가격이 낮아서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하기 딱 좋죠. 절주가이드와 건강음주전략을 소개하며 강의를 마무리 합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상록수보건소

일동 치매안심마을 지도 제작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상록구 제2호 치매안심마을인 ‘일동 치매안심 백세건강마을’의 치매협력기관과 치매안심업소 ‘보드미’를 표기한 치매안심마을 지도를 손수건으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지도는 치매안심마을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일동 치매안심 백세건강마을을 지역 주민과 치매어르신들이 치매협력기관과 치매안심업소 ‘보드미’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치매안심로드맵이다.

아울러 길을 잃고 배회하는 치매어르신 발견 시에 상록수 치매안심센터, 일동파출소, 치매안심 ‘보드미’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통해 신속한 구조요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을 보다 내실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어르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857)

절주 가이드 10선

1. 과음을 피하라.
2. 첫 잔을 오래 천천히 마셔라
3. 대화를 즐기며 마셔라
4. 무리하게 술을 권하지 마라
5. 공복 시의 음주는 해롭다
6. 술을 마시며 피우는 담배는 독이다
7. 음주 후 스포츠는 위험하다 - 판단력도 반사 신경도 줄어들어 엄청 나게 많이 다친다.
8. 절대 약과 함께 먹지 마라 - 약도 간으로 대사된다.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서 병 얻는다.
9. 해장술은 위험하다 - 중추신경을 억제해 숙취가 안 느껴진다. 무리를 가해 신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10.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 중추신경이 마비돼 고속으로 달리는 차는 그야말로 살인흉기다.

건강음주 전략 7선

1. 1가지 술로 / 1차에서 / 9시까지만 마신다
2. 즐거운 분위기에서 편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신다.
3. 억지로 마시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4. 급히 마시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신다.
5. 반드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음주 전에 먹거나 같이 먹으면서 마신다.
6. 음주량은 주종별 표준 잔으로 1~2잔을 넘기지 않는다.
7. 매일 마시지 않는다. 최소한 3일 간격을 지켜라.

ASF는 사람에게 무해! 100년간 입증된 세계의 상식입니다

우리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 돼지고기는 국민의 힘!
국민은 우리 돼지고기의 힘!
여러분의 돼지고기 사랑이
우리농가의 큰 힘이 됩니다

안산시



겨울철 감기·독감과 유사해 놓치기 쉬운 질병들

해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발열, 콧물, 기침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감기 또는 독감으로 진단되는데, 이런 경험을 종종 해본 환자들 중에는 스스로의 증상을 무조건 감기라고 진단하고, 집에 있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감기에 걸리면 주로 콧물·코막힘·목 부위의 통증·기침·근육통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독감에 걸렸을 때에는 두통·발열·오한과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목 부위의 통증 및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환자에 따라서는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이 없이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들 사이에서 뒤늦게 감기 또는 독감이 아닌 다른 질병이 발견되기도 한다. 지금부터 감기 또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는 질병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감염성 질환

대부분의 호흡기계 감염은 발병 초기에 감기나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결핵으로, 기침, 야간 발열, 가래, 피로와 같은 증상을 흔히 동반한다. 그리고, 세균성 폐렴도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기에 비해 고열이 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을 동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고열을 동반하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호흡기계 감염이 아닌 다른 부위의 감염에서도 독감과 같은 몸살 기운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성신우신염과 같은 요로감염도 전신 근육통과 오한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요로감염은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시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도록 하자. 간염 바이러스에 처음 노출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한, 피로, 근육통, 구역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병이 진행되면서 소변색깔이 콜라색과 같이 진해지기도 한다. 입술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처음 노출이 되었을 때에도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 관련 증상은 대체로 자연히 호전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도 홍역, 말라리아와 같이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의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해외여행 여부나 특정 질환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는지를 이야기 하도록 하자.

알러지성 질환

매년 비슷한 시기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러지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알러지성 질환은 대체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안구 주변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겨울철에 알러지성 질환이 악화되는 주된 이유는 집먼지 진드기에 대한 과민반응이다. 집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막으려면 자주 환기를 하고 침구류를 햇빛

에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름내 옷장 깊이 넣어두었던 외투에도 알러지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탁을 한 후에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러지성 질환은 대체로 천식, 아토피와 같은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할 때 꼭 이야기 하도록 하자.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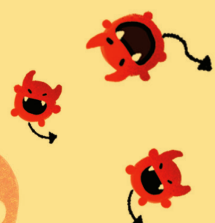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

-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합니다.
-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되면 진료를 받습니다.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결핵 검사를 받습니다.

잠복결핵감염에서 결핵으로의 발병을 예방하는 방법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앞으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였을 때의 위험성, 약제 부작용 및 개인적 특성(기저 질환 등)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권고합니다.
- 최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면역저하자,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등에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를 높은 수준으로 권고합니다.

-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결핵약 1종류 또는 2종류를 짧게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복용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치료 요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가 결정하며, 결핵약은 치료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합니다.



올바른 기침예절



하나,
기침·재채기 할 땐 손이 아닌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둘,
휴지가 없을 시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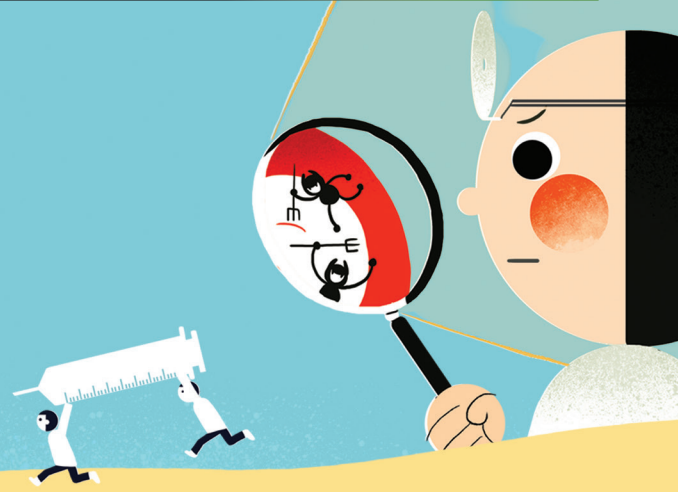


셋,
기침·재채기를 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겨울에 찾아오는 불청객 심뇌혈관 질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협심증·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뇌출혈·뇌경색증을 아우르는 뇌중풍 등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따뜻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찬 아침 공기에 노출되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 출처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추운 겨울 아침에 심혈관질환·뇌중풍 등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운 겨울 아침에 심혈관질환 및 뇌중풍이 호발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 설명된다. 우리 몸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이로써 말초동맥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동수도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여 피가 끈적거리게 된다.

이러한 효과가 종합되어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이나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도 증가한다. 또 겨울철에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고 체내 염증수치가 상승하는데 이것이 모두 심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겨울철에는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나는데 그로 인한 전신작용이 심혈관질환 및 뇌중풍 위험을 높이게 된다. 특히 인체의 바이올리듬에서 수면 중에는 교감신경 활동이 저하되어 심신이 이완상태에 있다가 잠에서 깨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긴장상태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루 중 아침에 심혈관질환 및 뇌중풍의 위험이 높아진다.

추운 겨울 아침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일까?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심근경색증, 심장 돌연사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또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서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 주의할 것은 평소에 증상이 없이 건강해 보였던 사람도 실제로는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혈관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겨울철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에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은 특히 노인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노인들은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과음과 함께 흡연을 한 경우 그 다음날 아침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진다. 과음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관상동맥이 경련·수축하여 심장허혈(심장에 혈액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이 상태에서 흡연을 하면 니코틴 성분에 의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혈관에 무리를 주고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며 흡연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심장과 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추운 겨울 아침에 심혈관질환·뇌중풍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혈압이나 고지혈증, 흡연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일상생활에서의 생활혈압을 잘 반영한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에는 5분의 안정을 취한 후 1차로 양팔의 혈압을 재며 이 때 높은 쪽의 혈압을 취한다. 5분 후 한 번 더 측정한 뒤, 1차와 2차 측정값의 평균을 혈압으로 기록하면 된다. 하루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2회씩 2일 연속으로 측정한 혈압의 평균이 생활혈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동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은 병원에서 수동혈압계로 측정한 혈압보다 5mmHg 정도 낮으며, 자동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이 135/88mmHg 이상이면 혈압이 높은 상태이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상태로, 혈액 검사에서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 나온 경우에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별도로 측정하며, 그 중 고지혈증의 치료 목표로 삼는 항목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최소한 130mg/dL 보다 낮아야 하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40~60mg/dL보다 높아야 하며,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여야 한다. 고지혈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이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활습관을 개선하고도 고지혈증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추운 겨울 아침이라면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충분히 입고 야외에 나서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치명적 결과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또 평소에 느끼지 않던 가슴 통증, 답답함, 호흡곤란, 두통, 사지마비나 발음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한다.

심근경색·뇌졸중 조기증상과 발생 시 대처요령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은 일상생활 시 30분 이상 지속되는 갑작스런 가슴통증·호흡곤란·식은 땀·구토·현기증 등이며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는 한쪽 마비·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이 각각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로 가야하는데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나, 토할땐 고개를 옆으로!



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셋, 다리를 주무르거나 침을 놓지 마십시오!



넷,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십시오!

INTERVIEW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이트볼' 건강 지키며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운동으로 좋아요!

게이트볼은 '문'을 뜻하는 영어 '게이트(Gate)'와 '공'인 '볼(Ball)'을 합한 단어다. 국내에는 1980년대 초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 게이트볼 인구는 수십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리, 동별 분회 조직으로부터 면, 군, 구, 시, 도 단위의 연합회 조직이 구성돼 게이트볼 동호인의 운동을 돕고 있다.

안산시에는 게이트볼장 18곳(동별 위치)과 안산시게이트볼협회(상록구 성포동 598번지) 본부 내에 4개의 실내 구장이 있다. 어르신 생활체육 게이트볼교실, 유소년 게이트볼 체험교실 등 안산에서도 게이트볼 동호인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고신자 안산시게이트볼협회 회장(79세)과 박춘지 사무장(79세)을 만나 안산 게이트볼 동호회의 활동상을 들어봤다.

Q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4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며 회원은 250여 명입니다. 실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겠지요.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 협회에 90세 이상 회원이 2명이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Q 게이트볼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66세 때 지인이 함께 게이트볼을 해보자고 권유해서 시작했어요. 주로 속도 있는 운동을 해왔기에 적응할까 싶었는데, 기술을 습득하고 규칙을 알아갈수록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게 아쉬워요.

Q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다면?

동네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이트볼협회 내 실내구장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몇 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실력이 쌓이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구장에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은 무료로 진행돼요.

Q 게이트볼장 운영시간은?

일주일 중 일요일만 휴장해요. 공휴일에도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추석과 설날은 휴장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회 회원들은 자유롭게 구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구장에 와서 운동하고 싸운 도시락으로 점심을 나누며 활력 있는 삶을 보내는 회원들도 많아요. 각 동별로 운영되는 게이트볼장은 365일 휴장 없이 운영됩니다.



Q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지난해 전북 남원시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안산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3개 팀이 대한민국 대표로 아시아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 안산팀도 참여했습니다. 요 근래는 지난 11월 12일 시흥에서 열린 경기 서부권 대회에 12개 팀이 출전해 준우승과 8위를 차지했어요. 오전 일찍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느라 새벽부터 움직였는데 다들 쉼 없이 기쁘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Q 게이트볼 운동의 좋은 점은?

운동한다는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양쪽 팔을 움직이고 허리 굽혔다 펴기, 걷기 등 전신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친구를 사귄 수 있으며 두뇌를 많이 쓰는 운동으로 치매예방 효과가 큰 운동이에요. 쉽게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 문의 : 안산시게이트볼협회(031-402-4431)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나는 안산의 환경미화원...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까지 치운다 깨끗한 거리는 나의 보람이며 우리 삶의 질도 좌우한다

연중흙 씨는 심신이 건강한 45세 대한민국 남성이자 안산시민이다. 그는 도시의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초부터 먹다 버린 음료수, 취객의 토사물까지 전날의 흔적들을 말끔히 치워 깨끗한 하루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일을 한다.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며 안산시 도시환경미화를 책임지는 그를 지난 11월12일 안산시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보람과 고충을 들어보자.

Q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오전 7시가 넘어야 해가 뜬다. 언제 시작하고 마치는가?

가로 청소일은 계절과 상관없이 새벽 6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난다. 담당구역은 중앙역 남쪽 광장 단원신협에서 동쪽으로 안산천서로까지, 남쪽으로 송호중학교를 지나 주공그린빌9단지까지 구간이다. 새벽에 다중이용시설이 몰려있는 상가 지역부터 먼저 청소하고, 주택 골목 작업 후 9단지 아파트를 돌아 시작한 곳으로 와서 작업을 종료한다.

Q 동료 환경미화원은 몇 분인가?

나를 포함해 213명이다. 38세 최연소자부터 최령 60세까지 여자 27명 남자 186명이 있다. 하는 일은 다 같은 안산시 청소지만 맡은 구역에 따라 가로·장비·기동·재활용 반으로 나뉜다. 내가 속한 '가로반'은 차도를 제외한 거리청소를 한다. 빗자루로 쓸어 손수레로 쓰레기를 운반하다보니 하루 평균 12km를 걷게 되는데, 최근에 건전지로 움직이는 소형청소차 10대가 시범 보급돼 보도의 흙먼지까지 빨아들이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걷는 거리도 많이 줄었다. '장비반'은 도로를 쓸고 다니는 청소차량을 보냈을 텐데 그 흡입차량을 이용해 차도를 청소한다. 기동반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워야 할 때 움직이고 재활용반은 안산시 전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 분류해 처리한다.

Q 거리에서 일하려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고충이 클 것 같다

물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봄엔 비처럼 내리는 꽃가



9월 도입된 소형청소차를 타고 작업중인 연중흙 씨
루를 쓸고, 가을엔 끝없이 텅구는 낙엽을 치워야하는 계절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차량을 불법주차 해놓고 몰래 버리는 쓰레기나, 화단, 변압기, 상가 앞 구분 없이 마구 버려지는 담배꽂초, 주택가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이 뒤죽박죽 쓰레기가 될 때 느끼는 고충이 더 크다.

Q 이 일에서 얻는 보람은?

거리를 싹 치워놓고 보면 먼저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웃들도 쾌적한 이 거리를 딛고 일터로 나가고 공부하러 가지 않는가. 청소는 단순한 일이지만 도시인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 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

(사)한국미래복지재단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둥근세상', '실비둥근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평등을 실현하고자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생활·재활·의료·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한 장애인들의 자존능력 개발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6년 설립해 안산시 대부도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둥근세상', '실비둥근세상'을 운영 중인 사단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다. 한국미래복지재단은 2008년 '둥근세상'을, 2010년 '실비둥근세상'을 개원했다.

'둥근세상', '실비둥근세상'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곳 시설은 이용인, 가족, 종사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거주시설로 서로 다른 장애의 특성, 비장애인과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곳으로, 맞춤형 개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누릴 수 있도록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둥근세상' 시설은 60명 정원으로 2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우선 조건이며 무료 입소의 혜택을 준다. 총 인원의 30%범위 내 실비입소자도 신청 받고 있다. 대부도 지역 학교와 연계해 이용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순회학급 운영으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기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와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비둥근세상' 시설 역시 2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30명 정원으로 실비입소자만 들어올 수 있다. 이 시설에서도 대부도 지역 학교 순회학급 운영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으로서 시민들의 나눔과 봉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한국미래복지재단은 홈페이지(<http://roundworld.or.kr>)를 통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후원, 1:1 지정결연 후원, 물품후원, 특정 목적 지정기탁,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후원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식사도움·세탁·이미용 등 생활지원, 학습지도 등 교육지원, 말벗·상담 등 정서지원, 각종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지원, 각종 행사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비둥근세상 서보한 시설장은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 하지, 억압받고 차별받기 좋아할 사람은 없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는 나와 너를 인정하는 만남을 가져보면 좋겠다”며 시민들에게 시설을 소개했다.

◇ 문의 : (사)한국미래복지재단(032-886-053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마음도 살리고, 삶도 살리는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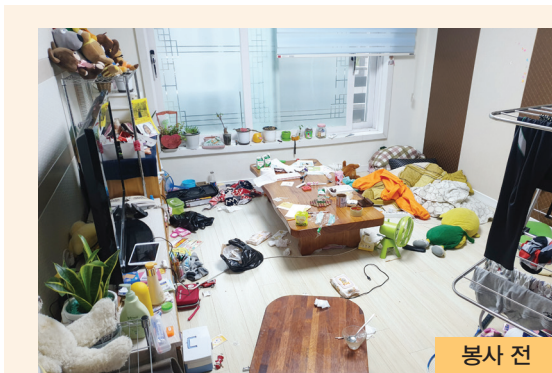
'생생정리수납봉사단' 정리수납전문가들의 재능나눔 활동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활동 중에 특별한 자원봉사단이 있다.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개선 자원봉사를 하는 '생생정리수납봉사단'이다. 정리수납을 통해 '마음도 살리고, 삶도 살린다'는 뜻을 가진 '생생정리수납봉사단'은 2015년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 수료와 자격을 취득한 봉사자들이 공모를 통해 만든 봉사단명칭으로 올해 초 3기까지 양성되어 활동 중이다.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은 '미니멀라이프'가 대세인 트렌드에 맞추어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기본 슬로건 아래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버림의 자유와 바르게 채우기, 나눔의 행복을 알리기 위해 개설되었다.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핑거존의 원칙, 원터치의 원칙, 총량규제의 법칙, 수납도구 활용의 원칙, 세로수납의 원칙, 라벨링 등 공간의 문제점 및 수납방법을 총 5주치의 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생생정리수납봉사는 관내 복지관이나 주변의 추천, 직접 신청 한 가정에 사전 답사를 통해 월 1회 이상 독거어르신, 한 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등 안산관내 소외계층 가정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에너지 봉사단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풍도 2가구 봉사활동도 다녀왔다. 가정방문 정리수납 뿐만 아니라 기업의 봉사활동 시 필요한 기본적인 수납의 방법과 가정에서의 정리수납 방법이 궁금한 안산시민을 위해 수건, 옷, 양말에 관한 수납방법을 교육하는 자원봉사활동도 진행했다.



교육을 이수 후에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납의 방법을 얻은 것 같아 기쁘다”는 호응을 얻었다. 봉사활동 후 비우기를 한 물품 중 사용가능한 것은 관내 경로당, 복지관, 재활용센터에 다시 나눔도 실천한다.

활동에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다. 주인의 동의 후에 버리고 정리한 것을 봉사단이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쓰레기봉투를 열고 다시 집으로 물건을 들여놓으시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 봉사 1주일 후 세탁한 의류들을 가지고 재방문 했을 때 봉사 전의 모습처럼 되어 있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정리수납 가정의 대상자께서 “나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고마워요.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대상자는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할 줄 모르고 몸이 아파 쌓아만 두기만 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해서 망설였지만 정말 잘한 것 같다. 많은 봉사자분들이 와서 19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해주었고 둘 곳을 몰라 방황하는 물 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어서 나도 가족들도 너무 만족스럽다. 잘 유지하고 살도록 노력중이며, 이렇게 좋은 걸 나도 배워서 다른 분들께 봉사를 하고 싶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감사의 인사 덕분에 다른 어떤 자원봉사활동보다 생생정리수납봉사 활동은 언제나 보람과 에너지가 넘치는 봉사활동이다.

안산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여러 정책들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없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정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생생정리수납봉사단의 정성 가득한 전문손길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간다.

◇ 문의 : 안산시자원봉사센터(031-411-1365)
글 : 생생정리수납봉사단 길지영

사랑의 김장 나눔...이웃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다

자원봉사자 2천600여명 호수공원서 김장김치 43톤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눠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밀 때가 되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다. 11월16일 호수공원중앙광장에서는 독거노인·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등 직접 김장을 담기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줄 김장김치를 담그는 대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안산시통장협의회·안산시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안산시협의회·국제로터리클럽3750지구·적십자경기지사 등 소속의 자원봉사자 2천600여명이 오전 9시부터 모여 김장김치 43여 톤을 담갔다.

김장재료는 경기테크노파크·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반월농업협동조합·서울유유허동조합안산공장·안산농업협동조합·아름다운사람들끼리·(주)에스컴텍·OK저축은행·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후원으로 십시일반 마련됐다.

배추는 충북괴산의 절임배추, 배추 속 양념은 화성시 식품제조업체의 무채·갓·참쌀풀·파·마늘·생강·액젓·고춧가루·생새우를 넣은 국산 우수 농수산물로 준비됐다. 2천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앞치마·위생모·마스크·고무장갑까지 복장을 갖추고 김장을 했다. 한 쪽에서 배추 속을 채우면 또 다른 쪽에서는 나르고, 포장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에는 웃음꽃이, 김장 탁자 위에는 김치 꽃이 활짝 폈다.

좋은 일에 함께 한 이정숙(48·사이동) 씨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힘들이지 않고 똑딱 김장이 끝났다”며 “해마다 동 단위 김장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처럼 행사가 크게 열린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도 체험하고



이웃과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추영희 적십자 안산시지부장은 “김장철을 맞아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들이 다시 모였다”며 “오늘의 온정이 지역사회에 퍼져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온정과 정성으로 담긴 김장김치는 10kg씩 상자에 담겨 안산시 25개 동 4천300여 가구와 복지 관련 단체에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농가 지원을 위한 돼지고기 수육 시식행사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함께 진행돼 돼지고기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돈농가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09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



돈코츠라멘 (豚骨ラーメン)



1963년 한국에 라면이 처음 출시됐다. 삼양식품은 당시 경제가 어려워 먹을 것이 많이 없는 국내에서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본의 인스턴트 라멘을

라면, 눈치 보지 말고 ‘후루룩 면치기’하며 먹어요

들여왔다. 결국 라면과 라멘은 뿌리는 같으나, “라면 먹으러 가자”와 “라멘 먹으러 가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먹으러 가는 장소가 다르다. 라멘은 편의점, 대학교 학생식당 등이 떠오르지만 라멘은 일본풍 인테리어로 꾸며진 음식점이 떠오른다. 두 번째, 음식의 가격이 다르다. 라멘은 저렴하면 600원 비싸면 4천 원 정도지만, 라멘은 보통 6천 원 이상에, 비싸면 1만 원이 넘는다. 세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다. 라멘은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이미지라면 라멘은 속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우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차이는 라멘을 라면이라 부르기 애매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음식은 여러 라멘 종류 가운데 ‘돈코츠라멘’이다. 돈코츠는 일본어로 돼지뼈를 의미하며, 돼지뼈로 우려낸 국물로 만든 것이다.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큐슈 지방에서 발달한 라멘으로, 일본에서는 후쿠오카의 다른 이름을 딴 하카타라멘으로 더 많이 쓰인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면, 소스, 국물, 고명으로 이뤄진다. 라멘의 종류는 보통 소유, 미소, 시오, 돈코츠 4가지로 분류하는데, 돈코츠는 소스가 아닌 육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소스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맛이 달

라진다. 소스는 크게 소유, 미소, 시오가 있다. 소유는 간장을 베이스로, 미소는 된장을 베이스로, 시오는 소금을 베이스로 만든다. 고명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쌈과 기와 비슷한 차슈가 있다.

라면은 메이지유신 때 외국에 항구를 개방하면서 여러 해외 문물과 함께 중국에서 국수가 들어오면서 탄생했다. 처음에는 중국국수라는 뜻으로 ‘시나소바’라고 불렸지만, 전국으로 퍼졌던 중국국수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많은 종류가 생기면서 독창성을 갖게 됐고, 사람들도 점점 라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일본 국민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라면을 만드는 방법은 면을 충분히 잠길 정도의 끓는 물에 삶아서 물기를 제거한 후 소유를 일정량 담고 육수를 부어 골고루 섞어준 다음 면을 가지런히 담고 차슈를 포함해 먹음직스런 고명을 얹어 완성한다. 일본에서 면 요리를 먹을 때에는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니 라멘을 먹을 때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맛있게 ‘면치기’하며 먹으면 된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시민기자가 간다!

마을을 대표하는 생생마을기자단, 초·중·고·대학생으로 이뤄진 학생기자단, 특색있는 글솜씨를 가진 SNS시민기자단이 전하는 안산시의 생생한 소식. 안산시 시민기자단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토크프로그램 '원곡동 반상회'

안산시와 티브로드 한빛방송에서는 외국인 주민에 관한 안산시 정책을 소개하는 '원곡동 반상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원곡동 반상회'에 출연해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체험강사 활동에 대해 소개한 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인 4세이자 생생마을기자단으로서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12월부터는 안산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최마리아 생생마을기자



동포 한마음 문화교류 축제

동포 한마음 문화교류 축제는 올해 2회를 맞아 원곡동 소재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동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 언어문화적 차이를 좁히길 바라며 진행 된 행사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무료 법률, 노무, 심리, 부동산 상담코너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훈훈한 정을 나누며 한국문화의 정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함미숙 생생마을기자



2019 안산의 수능 아침

2019년 11월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의 아침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5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와 오늘 안산시의 아침 온도는 0도에 가까워 정말 추웠습니다.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12년이라는 긴 초·중·고등학교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수능시험, 오늘은 안산시의 수능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성안고, 고잔고, 송호고 시험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 최민기 학생기자



유튜버! 그것이 알고싶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포털사이트가 아닌 유튜브를 더 많이 찾아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찾는 것보다 영상을 보고 정보를 배워가는 게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즐겨보며 이제는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진입장벽 또한 매우 낮아서 블루오션으로 불리고 있는 유튜브! 오늘은 유튜버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이재만 학생기자



디바제시카 크리에이터와의 만남

관산도서관에서 안산 청소년들의 진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문화강좌가 열렸습니다. '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인 크리에이터 BJ디바제시카와 함께하는 토크 형식의 자유로운 강연이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 181만 명, 조회수 5억 뷰를 자랑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오금화 SNS시민기자



찾아가는 뮤지컬단 A1

뮤지컬단 A1은 안산시공동체일자리사업 중 청년정책의 일환입니다. 관객들이 뮤지컬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광장, 학교, 지역 행사 등에 찾아가고 있는데요. 뮤지컬팀 A1의 공연은 갈라쇼(뮤지컬의 시그니처 넘버곡으로 이루어진 공연), POP PROJECT!, 어린이뮤지컬 등 총 세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무대와 퍼포먼스를 펼칠 A1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전지환 SNS시민기자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반월동

도서관 가는 길... 어린왕자 따라 떠나는 책 세상



책을 읽고 빌리러가는 도서관 길을 어린왕자가 나와 함께 간다면 어떨까? 어린왕자가 여행했던 수많은 별들을 함께 지나고 사막에서 어린왕자에게 길들여진 여우와 함께 가는 도서관 길.

도서관이 품고 있는 그 많은 책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지난 10월21일 반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동화가 있는 도서관 길'을 조성하고 개막식을 열었다. 반월동 반달공원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주택가 벽에 '어린왕자'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벽화를 그렸다.

또한 '도서관 가는 길'의 테마인 어린왕자 캐릭터와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반월동 로고를 사용한 포토존도 제작되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영조 반월동장은 "어린왕자를 보면서 꿈과 희망, 감성이 가득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 가는 길' 조성을 축하했고, 조남현 반월동주민자치 위원장은 "향후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반월동 전체로 확대하여 낙후된 기존 이미지를 벗고 새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 반월동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존 개막식에 참여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은 '도서관 가는 길'이 훨씬 밝아지고 예뻐졌다며 "낯익은 벽에 벽화를 조성하니 길도 깨끗하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갈 때마다 재밌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서관 가는 길' 조성을 반겼다. 이날은 포토존 개막식외에도 반월동 아이들을 위한 반월로고가 찍힌 에코백 꾸미기와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문의 : 반월동행정복지센터(031-481-5819)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사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한 로고젝터 설치



사동행정복지센터는 다가구 밀집지역의 쓰레기 배출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7곳을 선정해 '쓰레기배출 홍보 로고젝터'를 설치했다.

2가지 내용으로 제작·설치된 로고젝터는 주택가 주변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시간을 홍보하는 문구를, 불법투기가 빈번한 산 밑, 공터 등의 장소에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문구로 제작해 실정에 맞

는 홍보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로고젝터가 설치된 지역의 한 주민은 "바닥에 표시되는 쓰레기 배출 안내 문구를 보니,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쓰레기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숙 사동장은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가 다가구밀집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동은 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후, 로고젝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문의 : 사동행정복지센터(031-481-5532)

일동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일동행정복지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일동은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 주민총회 개최 등의 주민자치 업무를 비롯해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며, 조례에 의한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 후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일동은 1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며 만 19세 이상의 일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일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일동에 소재한 각급 학

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8시간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추천을 통해 최종 선정, 12월에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된다.

박용남 일동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안산시에서 일동이 최초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의 주민자치마을 역량 강화 활동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마을사업 추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일동행정복지센터(031-481-5501)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초지동

예쁜 새들의 아늑한 둥지, 좋은나무 작은도서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거듭난 좋은나무 작은도서관은 2017년 4월 초지동 그린빌아파트 18단지 상가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비영리 시설이며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사설 작은도서관이다.

이곳 상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침체된 상권에 마음이 쓰였던 손동선 관장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좋은나무 작은도서관이 시작되었다. 젊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해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사실이 손동선 관장의 마

음을 붙잡았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살아가는 지역을 사랑하게 하고 싶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생각해낸 것이다.

12평 남짓한 상가 내부 수리를 시작하고 1, 2층 복도를 손수 페인팅했다. 도서관을 개관하고 인근 어린이집과 주민들을 만나 도서관을 홍보했다. 오가며 만난 지역주민들이 자녀를 데리고 하나둘 도서관을 찾았다. 지인들의 소개로 찾아오기도 하고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용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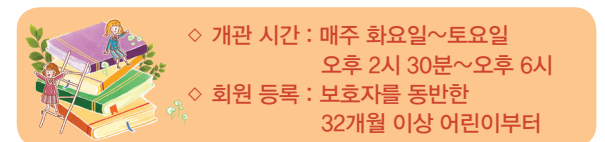
그렇게 시작된 작은도서관은 손동선 관장의 바람대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도서관 이용자가 한 달 평균 200명 정도로, 삭막했던 상가에 아이들의 종알거림이 가득하고 엄마들의 수다가 피어나는 활기찬 보금자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내 아이에게만 책을 읽어주던 어머니들도 이제 내 아이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책을 읽어준다. 매일 드나들며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다.

좋은나무 작은 도서관은 도서 열람과 대출 업무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술놀이와 독서 활동, 언어놀이, 책

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공방 모임, 뜨개 모임, 독서 모임 등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민 최 모 씨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매를 뒀는데 아이들과 함께 거의 매일 도서관에 와요. 아이들이 상가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끝나면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저는 그때가 쉬는 시간이에요”라며 행복해 했다.

손동선 관장은 “안산에는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작은도서관은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규모 있고 섬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같은 따뜻함이 오가는 곳입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좋은나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 문의 : 좋은나무 작은도서관(010-4144-3649)
이선희 명예기자_lamyu70@hanmail.net

백운동

‘마을계획 해보자! 실천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백운동 마을계획실천단은 백운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마을계획실천단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관내 청소년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백운동 마을계획 해보자! 실천사업’을 실시했다.

2019년 백운동 마을계획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청소년 프로그램 마련’의 실행 사업으로 11월2일 마련된 행사는 다양한 진로 탐색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목공 수업으로 꾸며졌다.

관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재능기부와 마을계획실천단 주민들의 지원으로 실시된 목공수업에서, 청소년들은 직접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함께 만들며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으며 마을 내 세대 화합의 장을 이루어냈다.

김동길 마을계획실천단장은 “마을 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백운동장은 “오늘과 같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고가 모여 우리 백운동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807)

선부1동

우리동네 공원 얼마나 아시나요?



선부1동행정복지센터는 ‘우리동네 공원알기’ 프로그램을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선부1동 관내 공원에서 진행했다.

우리동네 공원알기 프로그램은 2019년 마을혁신 기반구축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관산공원, 선부1공원, 화랑유원지에서 평소 지나쳤던 우리동네 공원에서 자라는 식물과 나무에 대해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등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정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숲 체험에 참여한 주민은 “평소 공원을 자주 다니지만 우리동네 공원에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몰랐

다”며 “숲해설가의 설명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으며 동네에 대한 새로운 애착과 함께 다음 숲 체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병권 선부1동장은 “학생들에 이어 성인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우리동네 공원알기를 통해 숲에 대한 고마움과, 한 걸음만 나아가면 가까이 있는 공원(숲)에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선부1동행정복지센터(031-481-6638)

안산문화재단 어린이놀이방 예술프로그램 인기

부모는 편하게 관람하고 어린이들은 문화예술 체험으로 만족도 높아

안산문화재단이 공연장 놀이방 이용 아동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공연장은 공연의 내용과 난이도, 안전의 이유 등으로 공연장 입장 가능 연령이 제한된다. 공연장에 왔지만 관람이 불가능한 아이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놀이방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놀이방에서 놀이기구 활동이나 영상 시청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올 초부터 운영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예술프로그램 이용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놀이방 예술프로그램 담당자는 “공연 전부터 미리 와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만큼 호응이 좋으며 한 번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다시 찾고 있다.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해 만족도가 높고, 특히 연말에는 놀이방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 요원을 늘리는 등 최대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공연장에서 만난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얼굴을 그리는 ‘누구누구 만났을까’, 상황극 놀이교육 ‘렛츠 롤 플레잉’, 과학체험 ‘도레미 요술피리’ 등이 있다. 낯선 사람 대처법을 배우는 ‘누구누구 만났을까’와 ‘렛츠 롤 플레잉’은 각각 낯선 사람 대처법과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방에서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 교사와 안전관리 요원이 이용자의 연령대와 흥미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등 이용 대상자 맞춤형 예술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공작 놀이 등 아동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계획되어 인기가 높다.

놀이방에 자녀를 맡긴 부모는 “아이가 놀이방에서 즐겁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히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앞으로 아이와 즐겁게 공연장을 자주 방문할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길을 잃었거나 부모와 헤어졌을 때 아동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인형극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



놀이방프로그램-미술활동

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산문화재단 어린이놀이방 예술프로그램은 예술의전당 공연 관람 시 연령 제한으로 입장을 못 하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 놀이방 이용은 당일 신청하고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 11월까지 놀이방 예술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은 총 253명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으며 재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031-481-052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 ‘1 운동부 · 1 산하기관’ 후원 협약식 개최

선수들의 소속감 · 동기부여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계기 될 것

안산시는 11월11일 스포츠와 삶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안산시청 직장운동부와 안산그리너스 FC 등 안산시 산하기관들이 참여하는 ‘1 운동부 · 1 산하기관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1 운동부 · 1 산하기관 후원’은 지난 9월 산하 기관장과의 회의에서 안산시 소속의 7개 육성 체육종목에 대한 선수들의 소속감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산시청 6개 직장운동부 감독들과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 안산도시

공사 사장,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산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안산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안산 도시개발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안산도시공사-안산시청 유도부 ▲안산문화재단-안산시청 씨름부 ▲안산시청소년재단-안산시청 탁구부 ▲안산시 체육회-안산시청 태권도부 · 육상부 ▲안산환경재단-안산시청 펜싱부 ▲안산도시개발-안산 그리너스 FC 등이 각각 후원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각 산하기관은 운동부에 용품지원, 대회 출전 시 격

려 및 편의 등을 지원하게 되며 각 운동부는 산하기관에 재능기부를 통한 임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소속 운동선수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청 직장운동부와 안산그리너스 FC가 안산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2109)



안산시자원봉사센터 9개 거점센터 운영

道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선정...일상적 자원봉사 활동 지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9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추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거점센터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각 거점센터에서는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에코볼런티어(Eco-Voluntee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의 편리함만을 위해 큰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생활 속 자연환경 훼손과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반월동 거점센터에서는 마을 영상제작 공모사업으로 ‘반달마을 온달뎃네’ 프로그램을 추진해 반월동 거주 초 · 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을역사 알아가기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도농복합지역인 반월동이 도시 외곽의 낙후된 마을이 아니라 역사 깊은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 스스로 마을역사를 배우고 제작한 마을 홍보영상을 지역 주민들에게 상영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신길동 거점센터는 ‘Dream & Future Guild’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며 스



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공동체 의식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많은 청소년과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었다.

홍희성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의 시 · 공간적 참여 접근성 확보로 시민들이 특별한 날에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동별 자원봉사 거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098)



안산시의회 의원들, 수어(手語) 공연으로 아름다운 소통 나서

주미희 나정숙 박은경 김진숙 이경애 의원, “장애인과 소통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다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한 수어(手語) 발표 행사에서 수어 공연으로 청각 장애인들과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 주미희, 나정숙, 박은경, 김진숙, 이경애 의원 등 여성의원 5명은 ‘아름다운 손짓’이라는 팀을 꾸려 지난 9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15회 안산시 사랑의 수어제’에서 수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2부 행사 네 번째로 무대에 오른 의원들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곡을 수어로 섬세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의원들은 약 한달 전부터 서로의 일정을 조율해 틈틈이 수어 연습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을 무사

히 마치면서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 측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원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손짓’ 팀 외에도 11팀이 참여해 노래와 연극, 연설 등의 수어 공연을 펼치며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사랑의 수어제에 참여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는 의원들은 “수어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확대하고 세상의 차별을 줄이는 훌륭한 언어”라면서 “안산시의회도 6대 의회부터 본회의 수어 방송과 점자 소식지 발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발굴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나정숙 주미희 이경애 박은경 김진숙 의원의 모습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의회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과 김동수, 김태희, 이진분 의원도 함께 참석해 대회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했다.

안산시 청소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정책제안서 의결

청소년의원 발의 안건 27건 의결... 6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안산시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년의회가 지난 10월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정책 제안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하고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 본회의에는 청소년의원들 외에도 김동규 의장과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태희, 이진분 의원,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하고 정책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단상에 오른 청소년의원들은 청소년흡연 예방과 결식아동 지원,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미세먼지 대

책, 손씻기 교육, 청소년 직업체험 확대, 휴대폰 중독검사 의무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총 27명의 청소년 의원이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발표에 나선 이들도 21명에 이르렀다. 청소년의원들은 지난 5월 청소년의회가 출범한 이래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와 주말, 방학 기간을 이용해 현장 견학 및 상임위원회별 입법 활동을 벌이며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서를 준비했다.

회의 후반부를 주재한 청소년의회 부의장 권시윤 학생(반월중 3학년)은 산회에 앞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안산시의회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미약하나마 청소년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제안 정책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모습

다”고 밝혔다. 김동규 의장도 인사말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이 학생들의 인생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면서 “청소년의원들의 제안 하나 하나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우수 안건으로 평가된 정책 제안을 발의한 청소년의원에게 연말에 있을 의회 종무식에서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산시의회 상임위,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앞두고 市와 머리 맞대

기행·문복·도환위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 진행... 정례회 안건 포함 총 83건 논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관련 안건 등을 협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 위원들은 지난 11월12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시 상생경제과 등 14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총 25건의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2020년도 예산 편성안, 시청사 재정비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가운데 위원들은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과 미래 가치를 감안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11월13일에는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명훈) 위원들이 문화복지위원장실에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비롯

한 시 13개 부서 관계자들과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가칭) 운영 건과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소급 지원 건 등 37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집행부 측과의 논의를 통해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이보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 위원들도 11월12일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시 환경정책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안산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무인공공자전거 구입 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21건을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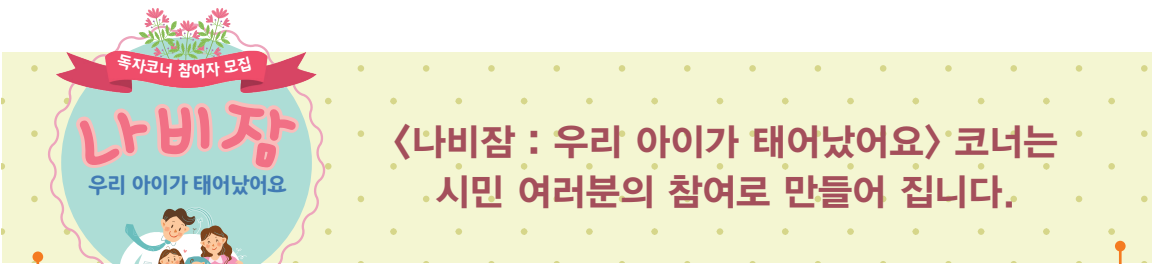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건 분석에 집중한 위원들은 소관 사업의 특성 상 지역 주민의 관심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



사진 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간담회 모습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이번 3개 상임위 간담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의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깜짝이의 첫 돌을 맞이하며

아기이름 : 이주호(남) / 출생년월 : 2018년 12월 / 태명 : 깜짝이
태몽 : 외할머니가 엄마랑 같이 갯벌을 다니다가 조개를 한 아름 안겨주시는 꿈



우리 가정에 깜짝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가 어느새 첫 생일을 앞두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주호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안아야 할 지,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허둥대던 초보 엄마아빠에서 이제 초보란 타이틀을 떼가는 것 같아요. 뒤집고, 기어다니고, 이젠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호를 보며 '이 작은 아이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주호를 더 지켜주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내 목소리에 웃어주고 이제 제법 엄마, 아빠

라고 불러주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주호야, 태어나서 1년 동안 열심히 성장하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가정에 항상 웃음꽃 피게 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더 사랑하고 지켜줄게. 사랑해 아가야:) 생일 축하해!

• 황은비(상록구 이동)

내귀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도시를 종단하는 안산의 하천들

안산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두개의 하천이 시를 관통하며 유유히 흐른다. 인근 안양시를 굽이굽이 흐르는 안양천, 학의천과는 다르게 안산의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세로로 곧게 흐르는 하천. 동쪽은 안산천, 서쪽은 화정천이다. 두 하천은 남쪽으로 내려와 동서를 가로지르는 4호선 라인을 지나면 마치 두개의 붓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산의 조선중기 실학자 이익과 단원 김홍도의 붓처럼 정갈하다. 더 내려오면 바다인 듯 강인 듯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임을 쉬지 않는 시화호와 만나며 생태도시 안산의 남쪽을 완성한다.

깊어가는 지난 가을주말 오후, 자전거를 타고 안산 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화정천 하류길을 거슬러 북쪽으로 라이딩을 하였다. 나무들은 알록달록 붉게 물들고, 길가에는 갈대와 물풀들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자전거 도로에 적힌 거리를 보니 3km남짓, 잠시 가던 길을 멈추니 건너 다리 인근 잉어들도 물려드는데 못 사람이 먹이를 주는 모양이다. 영물이라 불리는 잉어 떼가 모이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20분쯤 타고 나니 어느덧 화정천 상류. 인공적으로 만든 2중 폭포는 노적봉 폭포만큼은 아니지만 육교 밑 벤치에서 눈을 감고 들어보면 소리만큼은 꽤 운치

있다. 또 이곳은 가끔씩 백로가 거닐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수달(?) 같은 동물을 본적도 있었다.

경사진 길을 따라 인도로 올라가니 영동고속도로가 보이고 그 아래 먹거리 식당이 준비하다. 이른 저녁임에도 가족단위 손님들이 꽤 눈에 띈다.

칼칼한 추어탕을 한 그릇 먹고 내친김에 안산과 시흥을 잇는 금화로를 달린다. 한적한 도로라 차들은 빨리 달리고 종종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면 마치 한적한 시골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든다. 낙엽이 쌓인 자전거 도로를 지나다 보면 다육식물과 분재를 파는 비닐하우스가 눈에 띈다. 손바닥만 한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보니 문득 창가에 빈 공간이 생각나 초록이 하나를 구입했다. 가을이라 해가 어느덧 서산으로 지고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화정천을 따라 다시 바람을 가르며 내려가는데 서쪽 노을빛에 갈대가 황금빛으로 반짝인다.

도시를 종단하는 두개의 하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연에 접근 가능하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삶의 고단함도 씻겨 보낼 수 있는 안산의 하천이 나는 참 좋다.

• 이영재(단원구 호수동)

책 읽는 안산 / 12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건축의 발견』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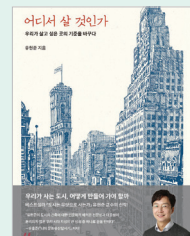


경복궁에서 만나는 우리 과학

저자 김연희 / 출판사 창비

광화문 · 근정문 · 경회루 · 수정전 · 향원지 · 건청궁 등 경복궁의 주요 장소를 답사하며, 그 속에 깃든 조상들의 유교적 이상과 백성들을 위해 펼쳤던 선진 과학 기술을 알아본다. 다채로운 사진과 아기자기한 삽화를 곁들인 책을 읽다 보면 옛 궁궐의 아름다움 속에서 조상들의 지혜를 발견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유교적 이상이 어떻게 건축 구조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각 건물마다 차례대로 안내한다.

청소년



어디서 살 것인가

저자 유현준 / 출판사 을유문화사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들으면 어떤 대답이 떠오를까. 어떤 이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이나를 떠올릴 테고, 어떤 이들은 자가나 전세나 월세냐를 떠올릴 테고, 또 어떤 이들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신도시냐를 떠올릴 터, 그런데 이런 선택지와 답변은 각자의 형편과 여력과 전망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앞선 질문이 향하는 방향은 '결정된 어디서'가 아니라 '가능한 어떻게'에 가깝다 하겠다.

성인



철학이 있는 건축

저자 양용기 / 출판사 평단

한 권으로 보는 알기 쉬운 건축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총 8장으로 편집하였으며, 인간에게 집이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하여 건축의 개념잡기,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 시대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언어가 변화하면서 건축물에서 시대와 이념까지 포함하는 과정을 많은 도판 자료를 소개하며 알기 쉽게 설명하여, 건축계 종사자는 물론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와 청소년층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법률
상식

11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2019. 11. 1. 시행)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9. 11. 1. 시행)

의료급여대상이 또 한 번 확대됐다. 앞으로는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6월 병원과 한방병원이 의료급여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입원료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은 30%로 본인부담률이 줄어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년층과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11. 2. 시행)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인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지도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2019. 11. 5. 시행)

지금까지 보충역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 만료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9. 11. 6. 시행)

해외 유학이나 취업, 국제혼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김성천 변호사



독자
투고



걱정 말아요 그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14일 퇴근하던 62번 버스에서 한 학생이 옆자리에 앉았다. 아마 수능을 보고 나오는 학생 같았다. 학생의 얼굴에는 수능에서의 해방감과 성적에 대한 기대감, 아쉬움 등이 비춰졌다. 아마 전국의 많은 고3 수험생들도 이 학생과 비슷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 모두 12년의 긴 학업의 마침표를 찍는 시험이 치러진 날인만큼 모든 것을 쏟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끔 수능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맘이 들곤 했다. 성적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낙담해 일탈행위를 하는 등 안 좋은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이 있는 수능을 망쳤다는 충격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물론 수능이 중요하지만, 결국 대학진학을 위한 것이고, 대학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에 연연해 지금과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불과한 탓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수능보다 더 중요한 날이 많아질 것이다. 잠 못 이루는 수능 전날보다 더 긴장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수능만큼이나 마킹 하나하나가 신중한 시험도 마주할 것이다. 또한 수능에서 해방된 기쁨보다 더 즐거운 순간도 맞이할 것이다. 결과가 어쨌든 이러한

경험과 그동안 수능을 치르기 위해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노력 등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고,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과거 일에 대한 후회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후회막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 일은 다시 어찌할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은 중요할 것이다. 반성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등 과거를 되새기는 생각은 누구나 하루에 수십 번 할 수 있다. 중요한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학생들도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양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길 바란다. 과거에 아쉬워할 시간에 앞으로의 꿈을 그리는 데 더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한다.

가수 전인권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에 나오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과거를 후회하는 이들에게 되새겨지길 바란다. 이제 곧 있으면 성인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 이인식(상록구 본오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한빛방송 (11월 5일)
안산방문의 해 선포식

MBC 뉴스투데이 (11월 7일)
생태계의 보고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시작

OBS 경인TV (11월 7일)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시작

한빛방송 (11월 7일)
안산, 전국최초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신길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업무개시



- ◇이전 위치: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42-7(신길동 1694)
- ◇업무개시일: 2019.12.2.(월)
- ◇내용: 신길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완공으로 인한 이전
- ◇문의: 신길동행정복지센터 (031-481-6613)

2020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모집

- ◇근무기간: 2020.1.6.~1.31. 일 7시간/주 35시간
2020.1.6.~2.28. 일 4시간/주 20시간
- ◇모집인원: 247명 내외 (모집인원 초과시 추첨선포)
- ◇신청기간: 2019.11.19.~11.27.
- ◇접수: 안산시 홈페이지 '새소식'란 전산 접수
- ◇참여자격: 공고일(2019.11.14.)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서 근무기간(2020.1.6.~2020.2.28.) 중에 학업, 군입대 등으로 중도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 한 자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 한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사전에 계량기실을 점검하여 갑작스런 추위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보존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주간 031-481-2037 / 야간 031-481-37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19.11.11.(월)~12.10.(화)
- ◇점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주차 불가한 차량 및 주차방해 차량
-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차량은 과태료 50만원
- ◇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5),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65)

안산광장 '성탄트리' 점등

- ◇기간: 2019.11.11.~2020.1.15.
- ◇운영시간: 오후 5시~다음날 새벽 3시
- ◇내용: 조형물 LED조명 및 포토존 운영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7)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채소류)

배출방법 안내

- 김장쓰레기가 적은 경우(종전과 동일)**
- 단독(다가구)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120리터)에 납부, 필증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김장쓰레기가 많은 경우(단독/공동주택 동일)**
-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흰색 - 100리터, 50리터)에 담아 배출
- 기타사항**
- 김장쓰레기(채소류)만 담아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 등 혼합배출 시 미 수거
 -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어도 음식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음식물폐기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음식물폐기물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음식물 수거용기 옆에 모아 배출.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안산919취업광장

- ◇ 일시: 2019.12.5.(목) 오후 2시~4시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 ◇ 일시: 2019.12.19.(목) 오후 2시~4시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청명한 도시를 만들자
럼(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위해
한사람의 부정부패도
안산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산처럼 푸른 안산을 만들자

독讀者書상尙우友

책을 읽어 지혜를 얻으면
옛 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안내

이용대상 안산시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모바일회원증 기능)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대출반납 12월 22일 10일간 대출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7개에 반납
반납연기 상호대차불가

운영장소(자하철역 4개소)

상록수역 한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한대앞역, 초지역스마트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장벽, 단원구청스마트도서관이 곧 찾아옵니다.
* 비지도서목록은 도서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lib.ansan.go.kr

BOOK WITH ANSAN 안산중앙도서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신청기간 2019.10.31.~12.2.

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031-481-3584)

신청서 처리결과 시 홈페이지 게시, 민원실(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담당 감정평가사가 검증 및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481-2628, 2637

안산시